

Vol. 14 | 2021 SUMMER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지도, '명리심리학'
학교에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체제를 만들자

Class Know-How

수학 기초학력 부진 이유, 원격수업에만 있나
학습결손, 누적되면 따라잡을 수 없다
'연민'의 힘으로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힘' 길러줘야

Hot EduTech

교실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로봇"

Interview & People

현상기반학습으로 '코로나19 프로젝트' 진행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숲을 꿈꾸다

Teacher Life

노래하는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굴(GYUL)"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1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
성적이 고민일 것 같아 상담을 했는데
정작 아이는 학교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없다고 한다.

땀 흘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다,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친구들과 옹기종기,
함께라서 아늑하고 걱정 없는 학교.

아이가 좋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공부 역시 즐거워지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담임의 욕심을 버릴 수 없어 다시 상담^^

CONTENTS

Vol.14 | 2021 SUMMER



24



28

Zoom in Focus

- 06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지도,
‘명리심리학’ • 양창순
- 08 학교에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체제를 만들자 • 김영식

Class Know-How

- 12 수학 기초학력 부진 이유,
원격수업에만 있나 • 이환규
- 16 학습결손, 누적되면 따라잡을 수 없다
• 이명숙
- 20 ‘연민’의 힘으로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힘’ 길러줘야 • 김지영
- 24 학급예술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의 열쇠 찾기 • 박준현

Hot EduTech

- 28 교실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로봇”
• 양해인

Interview & People

- 32 현상기반학습으로 ‘코로나19 프로젝트’ 진행
• 김현정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1년 6월 18일 통권 제14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e.com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 36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숲을 꿈꾸다
• 신경준
- 40 부모와 교사는 한 편이 되어 한다
• 박재원

Teacherville News

-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6 AI 기반 수업 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7월 오픈
- 48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0 신규과정

Teacher Life

- 52 노래하는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쿨(GYUL)”
• 이현지
- 56 아이패드와 펜슬만 있으면 뭐든지 그릴 수
있어요 • 우민경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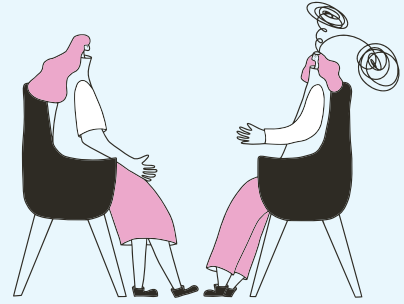
- 60 성찰과 성장이 있는 차근차근 블렌디드 수업/
수업이 즐거운 또박또박 손글씨 쓰기/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하루 한 장 습관 노트

Cartoon

- 62 학교에 간 서니쌤 • 정은선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지도, '명리심리학' **내 앞에 놓인 삶과 내 운명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글. 양창순 마인드앰컴퍼니 대표 겸 양창순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은 자기 운명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팔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운명을 탓해 본 적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계속 시련만 닥치는지' 고민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쌓이다 보면 화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이럴 때 사주와 정신의학의 만남, '명리심리학'에서 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마음,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나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우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너무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에 따른 '코로나 블루'도 심각한 사회현상이 돼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COVID-19로 인해 불안·우울·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쉽게 놓이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하나조차 다스리기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줘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머리로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머리로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 COVID-19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증상을 주로 보였다. 심지어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도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당장 그 병에 걸린 게 아닌가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COVID-19 사태가 길어지면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더욱이 집이나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지 못

해 한순간에 '벼락 거지'로 추락했다며 분노와 원망으로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말도 다르지 않다. 머리로는 안다, 누구나 다 힘드니 조금만 참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나 도 모르게 벽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정신의학과 명리학의 매칭으로 새로운 길 열어

누구나 내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느 인생에도 복병은 숨어 있다. 그것이 코로나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운의 흐름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함정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안내해 줄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도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찾아냈다. 알 수 없는 필연의 힘에 이끌려 명리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 나의 전공 분야인 정신의학과 매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명리학의 오행이 나타내는 한 개인의 특성이 정신의학의 성격 특성 분석과 놀랄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나는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내친김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주역을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두 학문을 접목해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나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고, 이윽고 그에 대해 책도 쓰게 됐다.



약력 양창순

- 마인드앳컴퍼니 대표 겸 양창순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 前 서울백제병원 부원장
- 前 연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강사
- 저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명리심리학』, 『담백하게 산다는 것』, 『오늘 참 괜찮은 나를 만났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외 다수

나를 명확히 알고 앞날의 갈피를 잡아보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숙한 태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해결방법을 찾는지는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생의 나침반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나의 잠재능력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 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것을 명확히 알면 알수록 그 혼돈의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명리학과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릴 때, 그리하여 도저히 앞날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명리심리학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다. 또한 그런 경험을 좀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다. ㉠

학교에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체제를 만들자

글.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기초학력 부족이나 학습 격차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걱정스러운 일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 격차를 겪으며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 교사는 이 문제의 해결이 좀처럼 쉽지 않아 고심하기 일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돼오던 문제라는 점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오랜 기간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에 관해 연구해온 김영식 선생님은 '3단계의 학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초학력 논의, 제대로 하자

코로나19 시기에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학력 문제는 우리 교육계가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잘못된 해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를 표방하며 2008년 처음 도입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교 간 경쟁,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연동시키며 교육청 간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강제 보충수업, 본 수업 대신 기출문제 풀이 등 교육과정 파행 운영의 결과만 남겼다. 수치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줄었으나 기초학력 미달을 벗어난 학생은 다음 학년에서 다시 학습 부진에 빠지는 일시적 현상일 뿐,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방식의 성취도평가는 그 학생이 학력이 낮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기초학력이 부족해진 원인과 해법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진단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만 남겨놓은 채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분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상당수 존재한다. 중3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는 2016년 2.0%에서 2017년 2.5%, 2018년 4.4%, 2019년 4.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학은 2016년 4.9%에서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바뀌면서 학교 간의 비교가 사라진 점, 이에 따라 학생이 시험에 대해 갖는 부담이 사라진 점 등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비율의 증감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결과를 잘 해석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줄었어도 실상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도 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는 국어 평균 3~4%, 수학 평균 7~8%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약력 김 영 식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화정고등학교 교사(휴직중)
- 前 기운실교사모임 대표
- 덕양중학교에서 연구혁신부장, 학생인권부장 역임

기초학력은 다른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

새로운 학력 논의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문제에 대한 직면을 방해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새로운 학력관을 제시했고,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학력관을 제시하며 기존의 인지적 영역의 지식관에 사회·정서적 역량을 추가한 새로운 학력관을 제시했다. 새로운 학력론은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요소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뤄야 할 교육의 상



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논의다. 하지만 기초학력 논의에서 중요한 읽기·쓰기·셈하기는 역량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역량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역량교육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학교생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기초학력 문제는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다른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학습 능력이다. 읽기·쓰기·셈하기를 비롯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학생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 시스템이 필요해

기초학력 지원이 성공하려면 조기에, 전문성 높은 교사가,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에서 특별지원 교사에게 학습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학습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낙인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학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교사가 배치돼 있고, 특별지원 교사 중심의 팀으로 활동하는 상시적인 학습지원 체계가 학교에 마련돼 있어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교육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기초학력 지원이
성공하려면 조기에,
전문성 높은 교사가,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



담임교사·교과 교사의 일차적 지원이 우선이다

우선 학습지원 1단계에서는 평소 수업시간에 학습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지도를 하고, 더 높은 단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단계다. 1단계 지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사들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학습 점검과 보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이 학습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곳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교사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 현장에 보급돼 있다면 1단계 지원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보급한 『찬찬한글』은 1학년 읽기 교육의 첫걸음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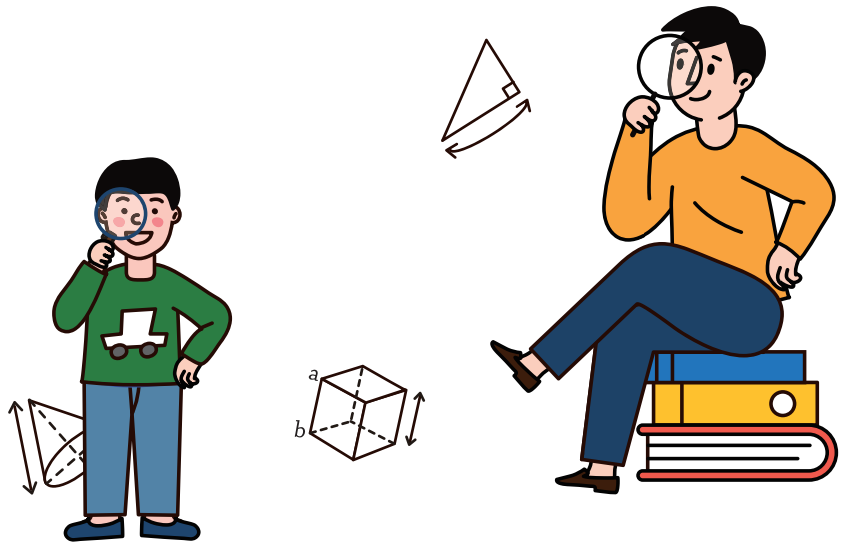
교실 수업에서 아무리 1단계 지원을 잘해도 난독이나 난산과 같은 특정 학습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학생들은 여전히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을 위한 2~3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나 특수교사 중에 학습지원에 관심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수를 받게 해서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학교에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기초학력 지원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선발해 일반 학교에 배치할 때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지원 전문교사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로 활동하거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교사를 활용해 여러 학생을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다. 현재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 다중지원팀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만일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다중지원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중지원팀이 기초학력 지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학력과 학습격차에 관한 관심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과 교육 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①



수학 기초학력 부진 이유, 원격수업에만 있나

그동안 열심히 해온 수학 수업 되짚어보아야

글. 이환규 당촌초등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학과와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 초등수학 교과서 검인정 집필 위원이자 오래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이환규 선생님은 학력 격차의 이유를 원격수업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수학 수업이 과연 학생들의 오개념과 난기능, 선개념 등을 고려한 수업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수학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선생님, 수학은 어려운데 왜 배워야 하나요?”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질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이 수학 문제를 잘 풀도록 가르치면 수학을 잘 가르친 것일까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사회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많은 부분에

수학이 기여하고 있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수학적 역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학문으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수학 교육은 수학 문제 풀이 능력 강조에서 수학적 탐구 역량 강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교육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암기하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수학 장면에서 자기 생각으로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일상의 수학 수업을 바꾸다

2020년, 코로나19가 학교를 뒤흔들었습니다. 수학 수업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원격수업, 그러나 대충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교과서와 익힘책을 꼼꼼하게 풀고 확인하는 수업, 도입과 정리 단계에 영화를 활용하는 재미있는 수업, 미션이나 게임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 자체 제작한 콘텐츠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서 선생님들은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곱셈·나눗셈·분수를 배우며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활동하기도 하고, 스마트기기와 앱을 이용해 평면도형의 이동, 직육면체의 전개도 등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약력 이 환규

- 당촌초등학교 교사
- 2015 초등수학 교과서 검인정 집필 위원(3~6학년)
- 함께자라기(전국 초등교사 학교박학습공동체) 운영
- 수학과 직무연수 강사(경기, 충북, 부산, 제주, 전남)
- 한일수업교류회 수학 수업 발표
-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수상
-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4.13. 19.3.1)

약분과 통분을 배우기 전에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약분과 통분을 할 때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할까요?

1.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면 >, <, = 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frac{2}{5}$ ○ $\frac{4}{8}$ $\frac{1}{6}$ ○ $\frac{1}{9}$

2. 12와 16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각각 구해 보세요.

$$\begin{array}{r} 112 \ 16 \\ 3 \ 4 \end{array}$$

최대공약수 (4)
최소공배수 (48)

○ 약분과 통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1. 교과서 64~83쪽을 읽으면서 약분과 통분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 보세요.

2. 약분과 통분을 수업하기 전에 미리 공부했나요?

1) 예/아니오, 어디에서 누구와 공부했는지 써주세요.

- 김에서 혼자 하는 영아와 함께

2) 아니요

3-1. (위 2번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내용은 약분과 통분을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1)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표 하세요.

약분 ○ 기약수 ○
통분 ○ 공배수 ○

2) 위에서 ○표 한 내용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약분한다: 분자를 다른 수로 곱해서 바꾼다.
예) $\frac{2}{5} \rightarrow \frac{4}{10}$

통분한다: 다른 분모를 같은 수로 바꾼다.
기약분수: 약분할 수 없는 수. 예) $\frac{1}{2}, \frac{2}{3}$

공배수: 통분할 때 같은 수로 만든다. 예) $\frac{1}{2}, \frac{1}{3}$ 공통: 6

3-2. (위 2번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1) 약분과 통분을 어느 정도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① 쉬운 것 같다. ② 보통일 것 같다. ③ 어려운 것 같다.

2) 교과서 64~83쪽 내용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을 써 보세요.

○ 약분과 통분을 공부하기 전에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보기>와 같이 각 칸을 주어진 개수만큼 칠해서 나누고 ○면의 앞뒷면 수를 써넣으세요.

각 칸을 2개씩 칠해서 나누기

전체: 2칸 색칠: 4칸 색칠: 1칸 색칠: 2칸

각 칸을 3개씩 칠해서 나누기

전체: 2칸 색칠: 6칸 색칠: 1칸 색칠: 3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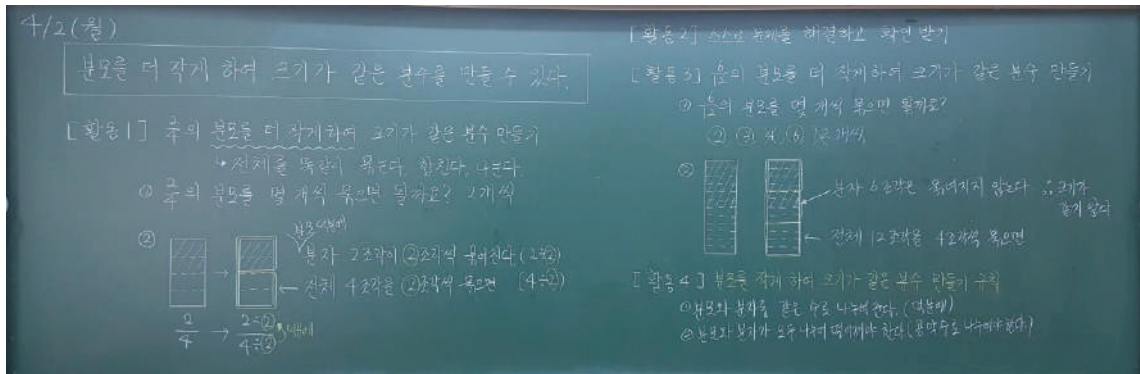
2. <보기>와 같이 각 칸을 주어진 개수만큼 칠하고, ○면의 앞뒷면 수를 써넣으세요.

<보기>

전체: 10칸 색칠: 5칸 색칠: 5칸 색칠: 3칸

전체: 12칸 색칠: 6칸 색칠: 6칸 색칠: 2칸

출발점 진단 학습지(약분과 통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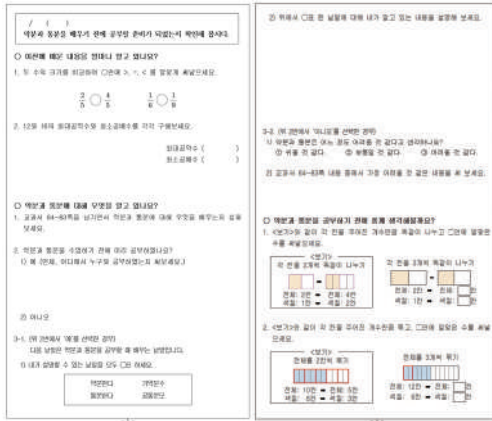
칠판 판서(약분과 통분).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장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나날이 벌어진다 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초·중·고의 기초학력과 학습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위권 학생 비율은 줄고 하위권 비율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코로나발 학력 격차'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등교수업뿐 아니라 원격수업에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과와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에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학과와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의 이유를 원격수업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가르친 수학 수업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동안 해 온 '열심히' 가르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오개념과 난기능, 선개념 등 출발점을 진단한 수업이었는지, 학생들의 개념 형성을 위해 말하기나 쓰기 등 의사소통을 강조한 수업이었는지, 계산 원리를 탐구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 수업이었는지, 교과서의 문제를 분석해 우리 반 학생들에게 맞게 미세 조절한 수업이었는지, 필요한 구체적 조작 활동을 충분히 한 수업이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원격수업의 경우, 에듀테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에 중점을 둔 수업이었는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수학적 탐구보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거나 문제풀이식 수업은 아니었는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 등 원격수업의 장점을 반영한 수업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를 줄이는 수학 수업은 그 본질에서 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대안 교재(약분과 통분).



개별 맞춤형 선택 학습.

모두가 행복한 수학 수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단원을 지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도서 읽기입니다. 지도서의 단위 개관, 교육과정 성취기준, 단위 목표, 유의사항, 배경지식 등을 꼼꼼하게 읽고 교과서를 분석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논문이나 미국·일본·핀란드 등 외국 교과서를 참고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반 학생들의 출발점을 진단합니다. 교실의 학생들은 배울 단원을 미리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부한 학생들도 내용을 이해한 경우, 계산 방법만 암기한 경우,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 반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 후, 실제 수업은 2~3일 후에 시작됩니다. 교육과정과 학생 실태를 반영해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대안 교재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 교재가 만들어지거나 수정되기도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를 위해

칠판을 활용하고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공책에 쓰면서 수학을 탐구해나가게 됩니다. 원격수업의 경우 개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선택형 수업, 시간 나누기 수업[예: 10+30분 수업(월요일 10분 출발점 진단, 금요일 30분 수업)]과 행복한 배움 교실(학교에 수학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학생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을 실시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을 위해 실시간 또래 협력 수업(예: 2인 1조 소회의실에 참여해 협력 활동하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에서 핵심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수학 수업의 본질입니다. 수학 수업,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T**



학습결손, 누적되면 따라잡을 수 없다

직접 연구 제작한 한글 교재를 학습지로 만들어 교육

글. 이명숙 과천초등학교 선생님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초1의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초1 학생들의 성공적인 한글 학습을 이끈 선생님이 있다는 소식이 그 비결을 물어봤다. 선생님은 우직하게 읽고, 쓰는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학습결손, 고학년 되면 따라잡기 힘들어

교직에 들어와 줄곧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맡아왔다. 5학년이 되어서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을 보았다. 고학년임에도 글쓰기를 시키면 맞춤법이 틀리고, 공책 5줄 채우는 걸 힘들어하기도 했다. 매해 부진아를 만났고, 외부 강사 또는 담임이 그 학생을 더 가르쳤다. 5학년 학생에게 그보다 아래 학년 과정의 국어·수학을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가르치고 나면 그새 반 학생들의 진도는 저만치 가 있었다.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학생들은 그동안 축적된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율적으로 성장할 뿐 학업 격차 자체를 줄일 수 없었다. 그때 느낀 것이 저학년, 특히 1학년 때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고학년에서 개선하기 힘들었다. 교과 내용뿐 아니라 학습습관, 생활지도도 1학년 때 바로잡아주는 게 효과가 크다.



약력 이명숙

- 과천초등학교 교사
-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등 저학년을 위한 한글과 셈하기, 쉽고 제대로 가르치기' 원격 직무연수 강의
- 경기도교육청, <초등 한글 교육 프로그램 '한글로 움트는 배움과 성장'> 집필 위원
- 티스쿨 원격연수원, '문해 교육의 기초 읽기·쓰기 한글 교육' 원격 직무연수 강의
- 국립한글박물관, '외국인 대상 한글 자모 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저서 시집 『지독한 사랑』, 교단일기 『노을 쓸기』, 한글 교재 『가나다 한글 교본 쓰기』, 『10일 한글 읽기』 외 다수

1학년 지도, 한글 학습이 부족한 경우 더러 있어

언제부터인가 글쓰기도 1학년을 맡게 됐다. 1학년 교실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었다. 미해득 학생에게 동료로부터 들은 교수법으로 가르쳐 보았지만, 한글을 생각대로 깨치지 못했고, 가르쳐 보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자 혼민정음 창제원리를 접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초등학교 1·2학년 원격수업은 EBS 방송 시청과 학습꾸러미 활용으로 대체됐다.

학습꾸러미 준비하며 대략적인 1년 계획 세우

“우리 애가 EBS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상담 때 어느 어머니가 말한 내용이다. 1학년 입학생은 담임과 친해지기도 전에 TV 속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겼다. 일방적인 TV 설명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 학습꾸러미를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대략 1년 계획을 짰다.

아이마다 학습현황에 맞춰 한글 학습 지도해

1학년 한글 수준은 한글을 다 알고 입학해 동화책을 줄줄 읽고 일기까지 적는 학생에서부터 더듬더듬 읽는 학생, 아예 한글을 모르는 학생까지 다양했다.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원격수업 중 학교에 오게 해 개별적으로 가르쳤다. 맞춤법까지 다 아는 일기까지 쓰는 학생은 지겹지 않도록, 글자 모르는 학생은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학습격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 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바른 글씨 쓰기로 접근했다.

직접 한글 교재를 학습지로 만들어

글쓰기가 그동안 연구 제작한 한글 교재를 학습지로 만들었다. 국어는 선 긋기, 도형 그리기, 자음 쓰기, 모음 쓰기, 교과서 낱말 따라 쓰기, 교과서 문장 따라 쓰기, 견본 보고 ‘강아지 똥’ 따라 쓰기,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 따라 쓰기, 글쓰기 순서로 진행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한마음 한뜻이 됐기에 가능한 일

매일 1장씩 한글을 쓰게 했다. 홀짝 등교하는 때도 있었고, 전체 등교하던 때도 있었다. 원격수업으로 다시 전환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따라 썼다. 등교할 때는 등교하는 날 그동안 과제를 챙겨오고, 원격수업 때는 학습꾸러미를 가지러 올 때 전 과제를 제출하며 1년 동안 쉼 없이 쓰고 또 썼다. 그사이 학생들은 반듯하게 글씨체가 잡히고, 맞춤법을 알아가고, 문장부호를 자연스레 익혀갔다. 아무리 교사가 양질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한마음 한뜻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은 글자를 쓰는 데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다 하면서도 잘 따라주었고, 학부모님들도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도와주셨다.

우려했던 학습결손, 놀랍게도 한글에서 뒤쳐진 1학년 없어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대로 2학년으로 올라왔다. 올해는 처음부터 매일 등교를 하는 상황이라 따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국어 교과서만 충실히 한다. 따라 쓰기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으로 계속하고, 2학년이 되어서는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결손은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받아쓰기하며 몹시 궁금했다. 교육의 효과가 1년 만에 드러나지 않고, 학생들의 발전을 어찌 바로 측량할 수 있겠나만 국어에서 학생들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쓰기는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고, 아래 사진은 결석생을 제외한 전체 학생의 결과인데, 보다시피 뒤쳐진 학생이 없다. 한 반에 2~3명이었던 한글 이해득 구제는 물론이며 학습부진 학생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가정의 보호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열심히 과제를 챙겨줘 개별학습도 가능했다.

한글 학습, 읽고 쓰는 전통적이고 우직한 공부법이 중요해

지난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1학년 교실에서의 기초, 기본학력 정착,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은 일관성 있는 읽고 쓰기의 반복 학습이 정답이라 생각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외우는 전통적이고 우직한 공부법 말이다. 답은 늘 가까이 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⑦



3월 받아쓰기

티처빌매거진

동네방네 소문내요 SNS이벤트



EVENT 참여방법

- STEP ①** 티처빌매거진 여름호의 표지나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촬영
- STEP ②**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간단한 구독평 1~2줄 작성
- STEP ③** 아래 해시태크(#)와 함께 게시

#최신교육정보

#교사수업노하우

#티처빌매거진

#친환경용지사용

참여대상

매거진
구독자 누구나

이벤트 기간

2021년 7월
한달 간

당첨 선물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20명)

※ 8월 12일 당첨자에게는 별도 연락

'연민'의 힘으로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힘' 길러줘야

글. 김지영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학습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급한 대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지만, 모두가 온라인 수업이 익숙지 않았던 상태라 바로 실제 수업 환경과 유사하게 상호작용을 이뤄가며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초학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우려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 격차 실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까? 중등교육과 김지영 장학사님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았다.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학습 격차의 심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습 격차 및 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걱정이 크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성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¹⁾는 보고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중2 중위권(60점 이상~90점 미만) 비율은 2018년 중2에 비해 국·영·수 모두 10% 포인트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1)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일부 학생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업적 성취가 향상되는 반면(이런 아이는 흔하지 않으며 이런 아이를 둔 부모는 로또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학생, 부모나 가족 등 돌봄 자원이 부족한 학생,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초적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배움과 학습이 멈춰버린 경우가 많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친구와의 상호작용 등 관계성도 단절되면서 정서적인 결핍도 심각하다. 과거에 교사들에게 조사하면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은 10% 내외로 인식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업능력 저하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예고한 바와 같이 우선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습의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혼자 책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 서로 비계²⁾가 돼주는 것이다. 또한 학습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실제 수업 환경과 유사하게 교사나 또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면서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교사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

이렇게 학습 결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학력 개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초학력이란 용어는 매우 오래된 용어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기초학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 능력’(교육학 용어사전, 1995)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공통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약력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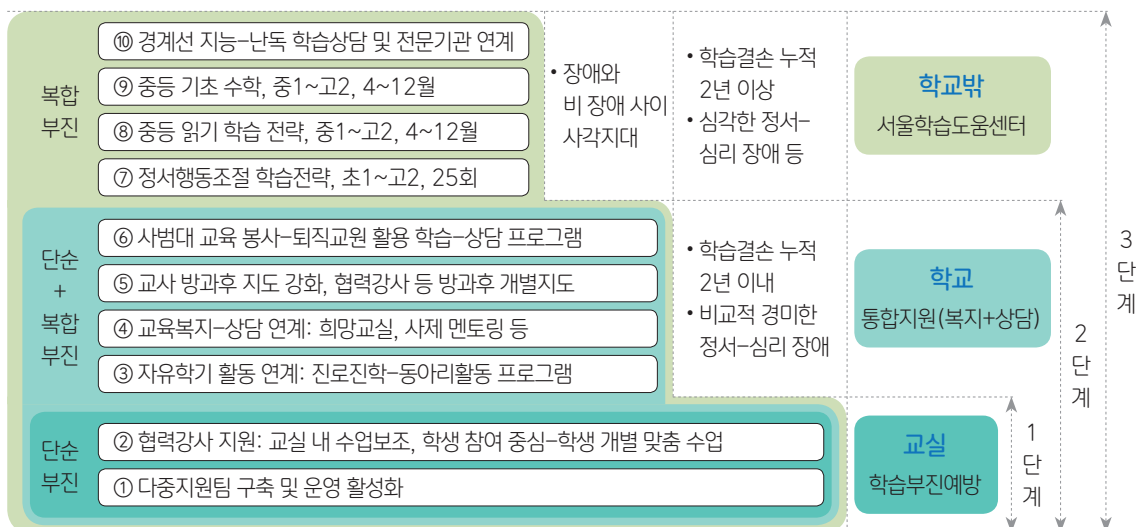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前 수락고등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근무

2) ‘비계’는 교육학자 비고츠키가 제안한 개념으로 건축공사 때 건물에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인 ‘비계’가 건축을 돕듯이 학습자는 교사나 앞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관찰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제자리가 없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주눅이 들어 있었고, 모둠활동에 피동만 준다는 다른 아이들의 비난을 듣고 있어야 했다. 공부를 못하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에 서투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은 이들과 어울리기를 피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가 몰랐던 교실”)

이러한 학습 부진 학생들은 오랜 기간 주변으로부터 부정적 기대를 받은 경우가 많아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가정에서도 다양한 문화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들을 ‘자원 결핍 학습 부진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을 못가면 개인 교습이라도 받아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지만, 도와줄 부모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속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교사들은 보통 중간 수준의 학습자에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교실 수업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학습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고,
해법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아이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는 ‘초2 기초학력 집중학년제’를 통해 입문기 학습 부진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책임지도제’를 통해 진단부터 지원까지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 학습지원대상학생³⁾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에서 1교실 2교사 제도 중 하나인 협력강사제를 운영해 수업 중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구할 단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책도 학생과 직접 교류하는 교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하와이의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난 800여 명의 신생아를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중단연구가 있다. 그 중의 고아, 범죄자의 자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200여 명을 ‘고위험군’으로 정하고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고위험군에 속한 2/3의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부진했다. 성인이 될 즈음 범죄자나 미혼모가 됐지만, 35%인 72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해나갔다고 한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이를 신뢰하고 이해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처하게 된 환경은 자신의 탓이 아니다. 이들에게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어 준다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가족을 제외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학습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고, 해법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아이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중요하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슬픔과 어려움은 교사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교사도 술한 좌절과 분노,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이겨내는 것은 불안하고 주눅 들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힘이다. 우리의 교육 정책에도 이 ‘연민’이 스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지대가 돼 주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를 응원한다. ①

3) ‘학습부진학생’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교육부,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2019))



학급예술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의 열쇠 찾기

'온택트 미래'로 행복한 '자(自)·화(和)·상(相)' 그리다

글. 박준현 인천 용현초등학교 선생님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교육부는 <2020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출품된 총 180여 편 중 70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고, 교원대회(초등) 부문에서 인천용현초등학교 박준현 선생님이 입상했다. 박준현 선생님은 코로나19로 혼자 익숙해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예술 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입상 여부를 떠나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한 수업 결과물을 보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예술 활동과 인성교육의 조화,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자.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예술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의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 자존감·공감·공동체 의식 등 삶의 행동역량 키워주기

교육과정

미술·음악·과학·도덕 등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①마주하기 ②창의적으로 상상하기 ③연결짓기 ④재창작하기 ⑤관찰하기 ⑥성찰하기의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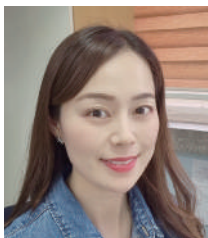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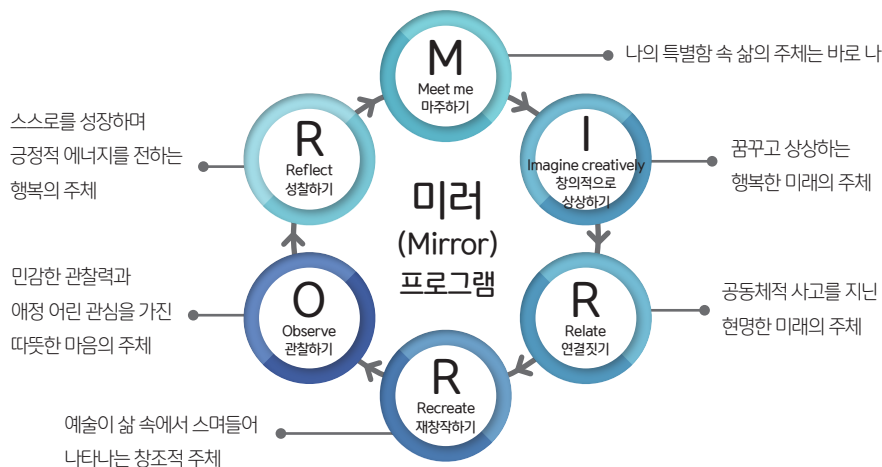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자기소개서·악기연주 영상·미술작품 등을 만들어 공유하고 긍정 댓글 나누기 활동 등 예술 공동체 협력 활동

코로나 블루, '예술과 성찰을 통한 인성교육'이 열쇠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현장은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등교수업과 원격학습 사이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학생들은 집콕 생활에 장시간 방치된 채 게임과 유튜브를 친구 삼게 됐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가 학생 주변을 맴돌았다. 교실에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필요했다. 글쓴이는 '예술과 성찰을 통한 인성교육'이 그 열쇠라는 희망을 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해 '온택트 미러'(Ontact Mirror)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온택트 미러 활동을 통해 행복 역량 높이기

인성 역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자(自)·화(和)·상(相)' 3가지의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①개인적 인성 역량으로는 예술과 성찰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自)존감'을, ②관계적 인성 역량으로는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감 화(和)합력'을, ③사회·문화적 인성 역량으로는 하나의 예술공동체 속에서 '상(相)호적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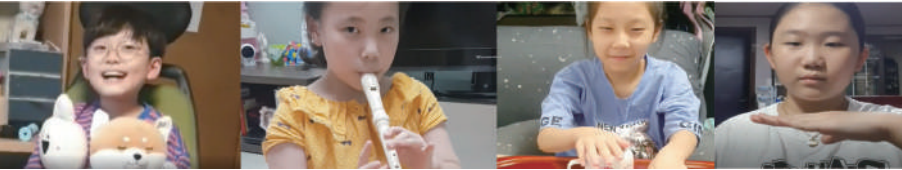
약력 박준현

-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
- 前 인천인주·연학·송의초등학교 교사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전국 1등급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학급예술공동체

많은 활동 중 제일 마음이 따뜻해진 활동은 재창작하기(Recreate) 중 '중합음악예술 4중 세트'이다. 음악시간에 배운 '작은 세상'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잘 맞아 학생들에게 노래, 리코더 연주, 컷타, 수화하는 영상을 녹화해 보내달라고 했다. 이것을 영상 편집해 우리 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학생과 부모님에게 모두 공유했다. 실력과

상관없이 함께 완성했다는 벅찬 마음에 모두가 몽클해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또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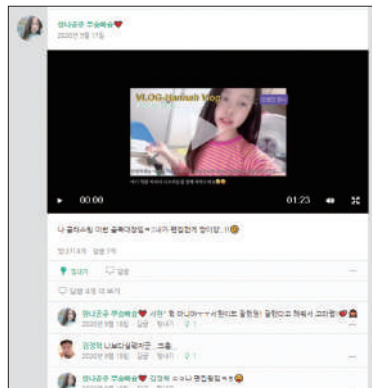
노래, 리코더, 컵타, 수화로 함께 노래하는 '종합음악예술 4종 세트'.

능동적 창작자가 돼 V로그 공유하고 나누기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관찰하기(Observe) 중 '집구석에서 놀면 뭐하니? V로그 프로젝트'였다. 제작하기 1주일 전부터 영상편집 앱(app)을 내려받고 평소 자신의 동영상 및 사진을 모아놓도록 당부했다. 동영상·사진 불러오기, 오디오(배경음악·효과음) 넣기, 글자 및 자막 넣기와 같은 기본 요소는 e학습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 화려한 편집 기술보다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강조했다. 처음에는 일상의 소중함을 관찰하고 감사하자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잘 만드는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능동적 창작자가 돼 나만의 것을 만드는 학생들은 활기를 띠었고,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 모습을 보며 글쓴이도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힌트를 찾은 것 같아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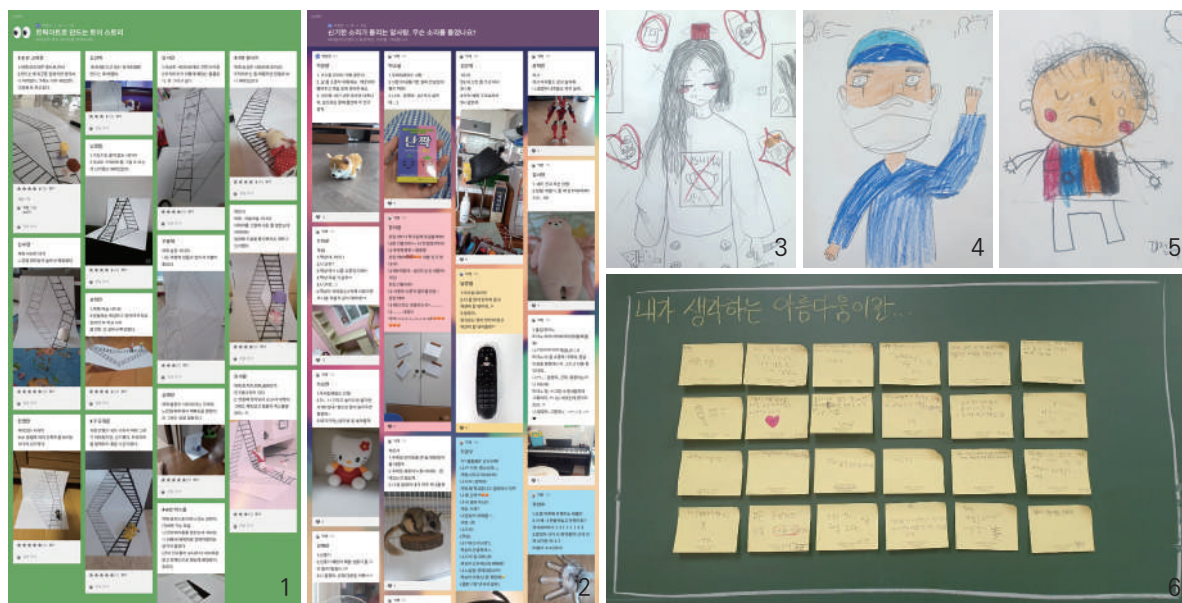
학생도 교사도 함께 공감·소통하는 온택트 교육

학생들도 점차 학급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예술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온택트' 교육을 통해 교



관찰하기(Observe) 단계에서 V로그 제작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관찰한 아이들.





1. 채창작하기.
2.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3~5. 마주하기-자화상.
6. 마주하기-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사로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학급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행복해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시대,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고민은 계속돼야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자아를 알아가는 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문화활동도 못 하는 시기에 예술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동 정말 찬성입니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다. 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원격 교육상황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추기도 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았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교육 플랫폼 및 투입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올 또 다른 언택트(Untact) 상황에서도 서로 온택트(Ontact)해 함께 연결돼 나눌 수 있는 예술인성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T**

메이커교육 어렵지 않다

교실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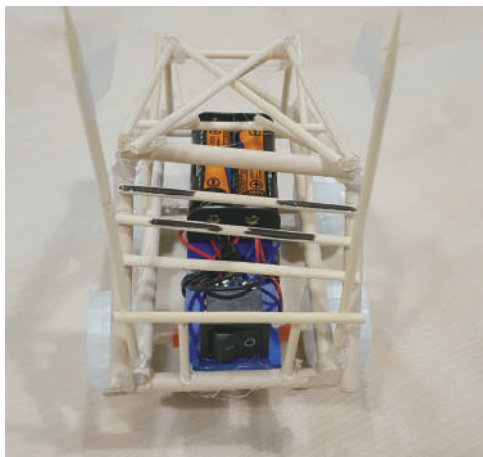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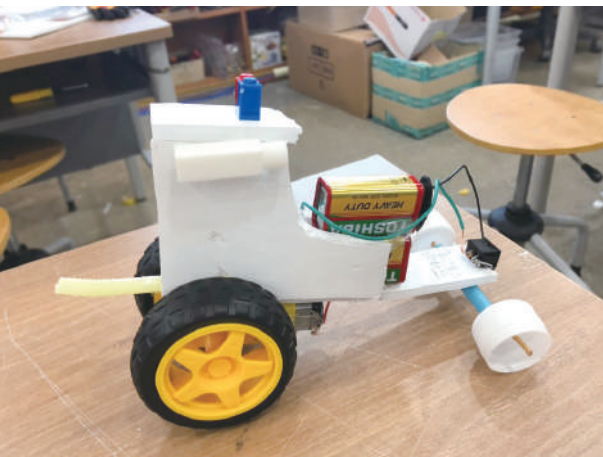
글. 양해인 경북초등학교 메이커교육 강사

몇 해가 지나도 다가서기 어려운 '메이커교육'

메이커(maker)라는 단어가 알려지고 메이커문화·메이커교육이 학교에 보급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큰 메이커페어 행사가 개최되면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협업과 즐거움의 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메이커문화나 교육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것', '기술이나 디자인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많이들 생각한다. 왜 그런 것일까? 메이커교육은 분명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메이커(Maker)'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문적 기술보다 만들고자 하는 '마음·상상력·문제 해결력' 필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술에서 지금의 메이커교육의 도구와 방법론을 따왔기 때문이다. 아두이노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중 하나이므로 전자공학을 모르면 사용하기 어렵고, 작은 컴퓨터라고 하는 라즈베리 파이도 리눅스를 모르면 사용하기 어렵다. 3D프린터는 마법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구설계를 할 줄 모른다면 판매하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피규어를 출력하는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꼭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기인한 기술을 알아야만 메이커가 될 수 있고 메이커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3D프린터와 같은 것도 도구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필요하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같은 이동 수단을 제작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했다.



기술 없이도 시도해볼 수 있는 메이커의 꽃, '로봇 만들기'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간단한 로봇 제작을 제안한다. 로봇 제작이 처음 듣기에는 메이커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제작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땜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종이를 접는다거나 간단한 공작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미술시간이나 공작시간에 누구나 접해보았을 재료를 가지고 첨단 기술의 정점에 해당하는 로봇을 만드는 활동이다. 학생의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기술이 낮은 사람들에게 허들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활동이다. 본질은 남기고 장점만 취할 수 있다.

교실에서 로봇 만들기를 할 때 떠올리면 좋은 Tip

교실에서 로봇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두 가지만큼은 기억하면 좋겠다. 첫째,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 정밀한 로봇을 제외하고는 저 사양 기술이나 테블릿만 활용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일부는 아예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교실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재료와 새로운 재료도 결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메이커 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배터리 모터 등을 연결해도 아이들에게 공학의 멋짐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공작 활동 하던 재료들을 추가하며 자신만의 로봇 설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약력 양해인

- 경북초등학교 메이커교육 강사
- 경북 충암초등학교 메이커교육 PM
- 테크빌교육㈜ 에듀커머스사업부 융합교육팀 콘텐츠 개발 책임

즐거움과 열정을 경험하기에도 좋은 로봇 만들기

사회나 인터넷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한 모두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더 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끌어내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발전한 기술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

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을 쉽게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호모 루덴스는 즐거움과 자신의 열정으로 진행되는 로봇 제작 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메이커 활동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중에는 다양한 로봇 제작 키트나 이를 활용한 모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들을 활용해 기본적인 흥미를 주어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과 활용도가 마음에 걸린다면 모터와 배터리와 간단한 전선 연결만 두고 도전해봐도 좋다. 더불어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을 소개하니 참고 바란다. ⑦

쉽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의 종류

1) 원시적인 로봇

진동으로 움직이는 바이브로봇, 태양열을 이용하는 BEAM 우블봇이 대표적이다. 가장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원시적인 로봇으로 지능의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

2) 이동하는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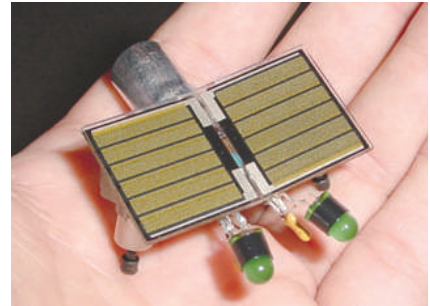
로봇 설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움직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여러 지형과 환경 속에서 로봇의 이동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 바퀴부터 시작해 바퀴형 다리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나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여러 가지 이동 방법을 설계한다.

3) 친구 도우미로서의 인공지능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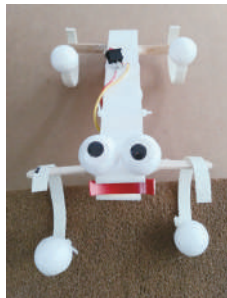
사회적인 로봇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친숙함이 느껴질 수 있는 도우미 로봇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SW를 활용한다면 챗봇 등이 기초적인 모습이고, 인형 같은 로봇을 제작해볼 수 있다.

4) 새로운 재료와 예술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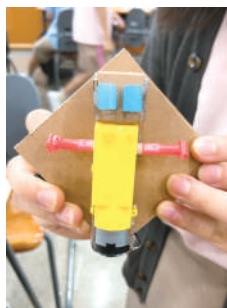
위와 같은 실용적인 로봇과 달리 예술가, 장난감 제작자, 교육자들이 로봇 공학을 통해 즐거움과 예술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토마타를 꼽을 수 있고, 레고도 이에 해당한다.



진동만을 사용해 움직이는 진동로봇.(좌)
태양열을 활용해 눈에 불만 들어와도 즐거울 수 있다.(우)



다리 바퀴 없는 자동차를 부탁하니 바퀴 대신 다리를 만들어 폴짝폴짝 뛰는 로봇을 완성했다.(좌)
동물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나만의 움직임을 개발할 수 있다.(우)



아무 기능 없이 팔만 돌아가도 아이들은 휴머노이드라며 충분히 만족했다.(좌)
오토마타는 이미 로봇의 기초를 넘어 예술의 영역이 됐다.(우)



학교옆선물가게
바로가기



티처몰이 만든 학교전용 스쿨굿즈샵

선물가게

티처빌초등학교



티처빌초등학교



티처몰이
하면 달라요

입학, 졸업, 체육대회, 재학생, 학부모 선물 등
상황과 대상에 맞는 **학교 특화 상품**들을 맞춤 제작!



학교의 상징

"교포" 디자인을 바꾸세요.

전문 디자이너가 오래된 로고를
그래픽&인쇄파일로 복원 또는 새롭게
디자인 합니다.



OPEN EVENT

학교 옆 선물가게 상품 200만원 이상 구매 시 교포 복원서비스 무료!



현상기반학습으로 '코로나19 프로젝트' 진행 MS팀즈, 원격제어·문서공유·확장성 등에서 활용하기 좋아

인터뷰. 김현정 노원초등학교 선생님

서울 노원초등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현상기반학습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현상기반학습이란 구성주의 형식의 학습 혹은 교수법으로 학습자들이 과목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주제나 콘셉트를 갖고 모든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PBL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과 유사하지만 '현상'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수업까지 가능했을까 싶지만 들여다보니 융합 수업이었음은 물론 아이들의 시야를 사회로까지 확장해준 알찬 수업이다. 김현정 선생님은 “최근 학력 저하 논란이 많지만, 오히려 ICT를 다루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화상으로 표현하는 등의 다른 역량은 향상됐을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Q. MS팀즈로 현상기반학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셨다고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수업을 아이들과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초등 답답이기도 하고 '현상기반학습'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오던 터라 현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게 제약이 되진 않았고, 오히려 화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의외의 기회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사를 찾고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며 몰입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Q. 현상기반학습이 아직도 생소한데요, 수업사례로 소개해주세요.

앞에서 PBL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과 유사하지만, 현상에 기준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가령 ‘생명’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 현상기반학습은 ‘현상을 정의’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요.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생명에 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있어?’와 같이 생각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정의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개인 또는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와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최근 현상기반학습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사례는 ‘코로나 해피 바이러스 프로젝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진행해 봤어요. 6학년 교육과정 중에 ‘지구촌 문제 탐구’가 있는데 이와 연계해 세계 지형, 기후부터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까지 조사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라는 사회 단원에 문화를 넣고 사건을 넣고 코로나19까지 살펴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들이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등과 같은 가짜뉴스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국어 과목의 비판적 사고를 수업에 녹여 융합적인 수업도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길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건소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와 마스크를 보내게 됐어요. 학년 프로젝트 예산에서 마스크 200장 정도를 구매해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보냈는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많이 감동하셨대요. 이후 고맙다고 마스크를 받는 영상도 찍어 유튜브에 올려주고, 노원구 보건소장님과도 연결돼 한 해 동안의 고생담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생 강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에 아이들도 저도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약력 김현정

- 노원초등학교 교사
-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사(MIEE)
- 스마트교육 선도교사
- 서울형 혁신미래학교 근무
- 前 서울 창원초등학교
- 저서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 교육의 답을 찾다』(공동번역 및 공저)

Q.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구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우연한 기회에 WFP(World Food Program) 한국사무소를 알게 돼 전문가 화상 만남을 진행했어요. WFP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국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비정부기구예요. 당시 사회과에서 비정부기구에 대해 학습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반가웠죠. 노원초 급식실과 연계해 급식량을 조절해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절약한 음식을 다른 곳에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 유엔 WFP 한국사무소장님과 아이들의 특별한 화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WFP의 활동들과 역할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정말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후 아이들이 식량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급식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에게 WFP 활동을 알리는 활동도 했어요. 실제 전문가와의 만남은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인 만큼 가능한 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Q. 이렇게 현상기반학습을 실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현상기반학습은 2016년부터 핀란드 정식 교과 교육과정에 들어간 프로젝트인데요, 국내에 이를 소개하는 저서를 번역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우 생소했는데요, 공동 번역하는 선생님들과 연구 모임을 갖고, 책의 저자인 키르스티 론카 교수님과 현상기반학습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핀란드는 교육에 있어서 열과 성이 넘치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꼭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끝에 미래 교육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현상기반학습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시작하게 됐어요.

Q. 현상기반학습의 장점과 어려움을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요?

무엇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배우면서 학습의 흥미와 동기가 강화되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아요. 반면 정해진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성취기준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저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항상 걱정이 앞서는데요, ‘과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잘 따라올까?’와 같은 고민이 연속돼요.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 믿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Q. 원격수업 도구로는 MS팀즈를 활용한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MS팀즈는 안정성과 보안이 뛰어나고 공동 협업



문서 작성 기능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보니 꼭 아이디어나 자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증명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증명만 되고 나면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팀즈가 원래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용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개방해주고 있어요. 분석 프로그램도 장점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공감하실 텐데 과제 채점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MS팀즈를 사용하면 아이들 성취 수준이 데이터로 쌓여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고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또 MS팀즈에 다른 앱을 가져와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사이트’라고 하는 분석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예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특정 시간에 아이들이 완료한 과제가 몇 퍼센트이고, 피드백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라인 활동을 했고 누구랑 가장 많이 온라인 활동을 했는지 등을 분석해줘요. 사용해 보니 확장성 면에서도 정말 좋더라고요.

Q.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좋은 MS팀즈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주세요.

협업 중심 플랫폼답게 협업 기능이 탁월해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요. 윈도우에서 원격제어 기능도 편리해요. 제가 원격제어를 신청하고 학생이 허락해주면 그 사람의 컴퓨터로 연계될 수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 제어권을 허락해 달라고 해 승낙을 받은 후 놓쳤던 부분을 짚어 주며 ‘이쪽으로 따라와’, ‘이 부분을 클릭하면 돼’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원격으로 1:1 교육이 가능한 거죠. MS 문서를 공유하고 함께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화상을 키고 같이 협업하며 파워포인트로 함께 문서를 만들고 서로 발표까지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뉴노멀 시대의 교육 혁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핀란드 교육에서
미래교육의 답을 찾다



Q. 끝으로 원격수업과 관련해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잘 마무리된 사례만 소개했는데, 실은 실패한 적이 많아요. 원격수업이 생소한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내가 목표로 한 활동을 다 담아내려는 욕심이 있어서 원격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수업을 할 수 없으며 실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땐 낙심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경험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어느샌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숲을 꿈꾸다

지구인의 미래를 위한 환경교사의 제언

글. 신경준 서울 송문중학교 선생님

매년 1,2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 3위다. 플라스틱으로 신음하는 해양생물의 기사를 보며 잠깐 안타까워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우리로 인한 것임을 떠올려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공동체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환경교육을 해야 할까

먼저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흙을 만질 기회를 주어야 환경 감수성이 형성된다. 우리 학교 중학교 2학년 환경 과목 수업에서는 꽃 피는 봄이 되면, 중학생들과 학교 숲에서 꽃과 나무를 관찰한다. 그리고 그 기록을 네이처링 애플리케이션에 남겨 학교 숲지도를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2학년들은 학교 숲 생물 종 카드를 만들어 1학년 후배들에게 학습 내용을 공유한다. 그리고 '나의 지구를 지켜줘'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학교 숲 탐험과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그중 한 팀은 마을의 제비집을 관찰하고 제비집을 달아주는 활동을 했고, 다른 팀은 학교 숲에 사는 생물들을 캐릭터 디자인으로 완성하기도 했다.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 아이들은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그





중 '숲속의 오케스트라' 팀은 근처 노고산에 올라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실제로 그 소리를 자연의 악기로 연주하는 버스킹을 학교 안팎에서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리는 송문중학교 친구들.
2. 교내 기후 행동 캠페인.
3. 노 플라스틱(No Plastic) 챌린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식수 지원사업에 후원

지난해 우리는 페트병 생수 소비도 줄였다. 229명의 학생이 일주일 동안 페트병 생수를 줄인 결과 137명은 평소처럼 페트병 생수를 소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소에 페트병 생수를 마셨던 92명의 친구는 319.75ℓ를 절약했다. 우리는 이렇게 절약한 금액을 모아 동아프리카 식수 지원사업에 후원하고 있다. 이 노력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특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축제도 열고 있다. 이날 학생들이 교내 기후 행동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교사들의 참여도 권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 과목으로 노 플라스틱(No Plastic) 챌린지 진행

더 나아가 환경교사모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함께 2020년 '맑은 공기 새로 고침'의 노 플라스틱(No Plastic) 챌린지를 환경 과목 수업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는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늦춰진 개학과 동시에 온라인 공동수업을 진행했고, 12,600여 명이 참여했다.



약력 신경준

- 서울 송문중학교 환경교사
- EBS중학 환경강사
- 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와 생명다양성재단의 운영위원
- 저서 『중학교 환경 교과서』(공저), 『탈바꿈』(공저)

학교와 가정에서 매일 진행되는 환경교육

우리는 맑은 날에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학교 교정에서 경주한다. 축제 날에는 태양열 조리기로 고구마를 구워먹는다. 또한 자신의 방을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개선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전시회도 열고 있다. 환경 교실에서는 500W 태양광발전으로 전기의 일부를 생산한다. 모든 교실엔 IoT 설비 스위치도 설치돼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각자의 집에서 부모님의 뒤

를 쫓아다니며 안 쓰는 전등을 끄고 플러그를 뽑기 시작했다. 에너지 절약 노래도 직접 만들어 마을 행사에서 캠페인을 펼친 결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선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으로 확장돼 주민들의 참여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중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 교실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완성했다. 아침마다 물걸레 청소를 하고 실내의 팬으로 강제 환기를 하며, 실내정화식물 40여 그루를 가꾸고 있다. 또 교실 안팎의 두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구시민으로서 나무 심기, 쓰레기 재활용, 물 절약하기, 전기 플러그 빼놓기, 부채와 선풍기 사용, 냉난방 온도 1도 낮추기, 태양광발전 설치,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환경과 과학을 필수 교육으로 택하는 전 세계적 흐름

세계의 교육을 살펴보면 핀란드,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호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과 과학' 군을 필수로 교육하고 있다. 핀란드에선 1~10학년까지 환경 과목을 9단위로 필수 교육한다. 프랑스에선 2015년부터 모든 중·고교의 학급에 환경부장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학생위원회 활동으로 확장됐다. 그 전국 학생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실천해야 할 환경교육의 8대 원칙을 제안했고,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돼 실행되고 있다. 캐나다에선 2016년부터 탄소중립 학교를 만들기 시작해 2030년까지 학교 온실가스 80% 감축에 도전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에 발표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17가지 목표 중에 기후행동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로 시작된 기후행동과 2019년 한국의 청소년 기후 소송단에서도 환경교육 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으로 이후 세계의 교육도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해 영국 노스오브타인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교사를 모든 국공립학교에 한 명씩 배치해 환경교육을 필수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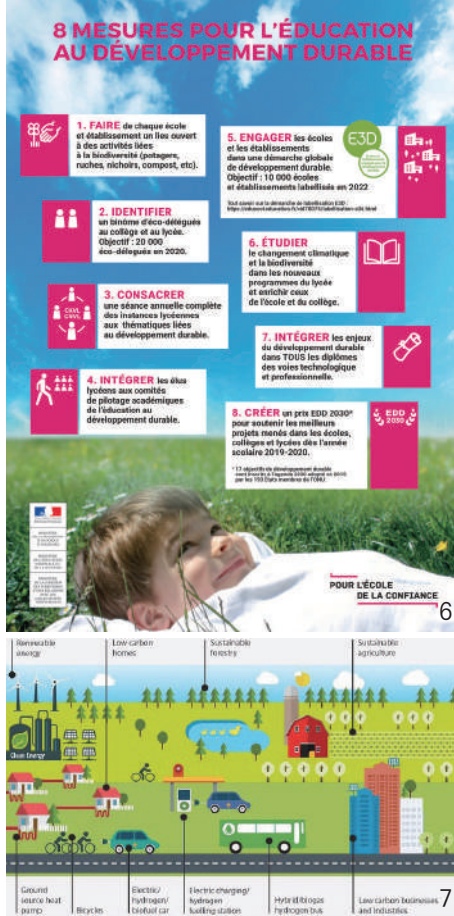
4. '코로나19, 알면 이길 수 있다'
온라인 공동수업.

5. 맑은 공기 새로고침 챌린지.

6.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을 위한 8대 원칙.

7. 320-low-carbon-ontario-by-205
320-저탄소-연비 205.

8.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K-12 교육과정 기후환경을 반영했다.



기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주당 1시간씩 기후변화 교육을 필수로 도입했다. 그리고 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도 환경교육을 필수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언하고 행복 경제 개념인 환경과 웰빙경제를 채택했으며, 국제사회의 시급한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조는 기후행동으로 수정돼 하원을 통과했고, 4월부터는 2시간 30분 이내로 철도가 연결된 곳은 국내선 항공권 발권도 금지됐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에 이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K-12 교육과정의 유치원과 초·중·고생 140만 명에 기후와 환경이 필수로 반영됐다. 그 내용에는 생물 종 보호, 자원 재활용, 기후위기,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그린에너지 경제, 기후위기 리더십이 전 과목에 반영된 것이다. 뉴질랜드에도 기후환경 과목이 개설됐다.

제대로 된 환경교육 절실, 환경교사들의 환경 과목 복귀 필요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학습자가 환경, 사회·문화,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 우선 서울·부산·울산교육청은 올해 선발된 환경교사들을 환경 과목으로 정장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세계적인 변화인 환경교육을 총론의 역량과 인재상에 반영하고 각론의 환경 과목을 필수로 개정하며, 그린스마트학교에는 환경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미래 한국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라면 기피하는 것이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공기·물·흙과 같은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사회에 상당히 유용한 것들임에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지만 지구는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이다.

아직 지구의 회복력이 남아 있는 산·강·바다를 아끼고 사랑해야 티처빌 선생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흙길을 걸어 봤나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꽃, 나무, 동물들을 만났나요? ㉮

부모와 교사는 한 편이 되어 한다

서로 탓하기보다 만나 이해하고 협력하고 존중해야

글.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와 교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부모교육 전문가인 박재원 소장님께 '부모이자 교사'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특별기고를 부탁했다.

‘진상’ 학부모 뒷담화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맘카페에 모인 부모들은 선생님들 험담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학교 현장에서 마주해야 할 교사와 부모 사이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하지만 훌륭한 아이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기에 오해에서 벗어나 진심이 통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사와 부모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기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교사 모두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모의 가정교육이 문제인데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다 보면 결국 아이는 피해를 보겠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만나**

교사들은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 창피하고 난처해진 부모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교사로서 노력할 것을 부모님에게 약속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교실에 있는 많은 아이가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고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혐오문화에서 벗어나기

흔히 우리 사회에서 ‘교사’를 얘기할 때, 모두 훌륭한 교육자이기를 바라면서도

부모들은 교사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한 교육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은 갈수록 제멋대로이고 온갖 잡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속사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사들을 비난하기 일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과정에서 모두 힘들어지고 아이 교육은 엉망이 되겠지요. 서로 믿고 지지하면서 부모와 교사 모두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만나**



약력 박재원

-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
- 前 (주)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소장
- 저서 『공부를 공부하다』(공저),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 외 다수
- 한국일보 '학부모 대변인 박재원이 간다' 외 다수 연재
- SBS <영재발굴단> 외 다수 출연

교사들은 학생이 있어야 학교도, 교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도 어려운데 교실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교사와 부모가 서로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부모들은 교사들은 퇴근도 일찍 하고 방학에도 쉬면서 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학부모들도 소홀히 대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불만이 생기면 돌아서서 욕하기 바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다 보면 감정노동을 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겠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활력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만나**

교사들은 마땅히 놀 곳도, 갈 곳도 없는 험한 세상에서 아이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이라도 악착같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주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학생을 내칠 수 있는 사교육과는 달리 모든 학생을 품고 가야 하는 교사로서 책임감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교사와 부모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만났을 때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교육 피하기

교사와 부모 모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들은 공교육 교사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며 학원강사들보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모들은 아이 공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학원에 보내고 근거 없이 공교육을 불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다 보면 얻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의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유능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나**

교사들은 여전히 경쟁이 심한 학벌사회에서 아이가 공부를 못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공감하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도록 가정에서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를 낳는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한 편이 돼 협력할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가정학습을 지도하는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만났을 때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학교폭력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누구나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부모들은 당사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있지 않고 교육기관, 교육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모들은 자신과 아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지를 부리거나 꼬투리를 잡아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자기들끼리 소문을 퍼뜨려 교사들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시켜 서로를 공격하다 보면 모두 피해자가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나**

교사들은 일단 잘못을 떠나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우선 관련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주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서로 겪게 되는 마음고생을 위로하면서 만났을 때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를 낳는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한 편이 돼 협력할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바쁜 현실이라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들 성장에 두 날개가 돼줄 교사와 부모 사이에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노력 아닐까요? ①



테크빌교육, ‘티처빌’,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서비스 ‘쌤학공’ 출시

- 도서 1권
- 도서 활용 영상
- 직무연수 1학점
- 강사섭외
- 전용 커뮤니티

쌤학공

이용권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쌤들의 학습 공동체’(이하 쌤학공)를 3월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하 전학공)는 교사들의 공동연구, 공동실천, 집단성장, 학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학습조직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반면 운영과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부족한 상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 섭외, 모임 형성, 문서 작성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됐다. 쌤학공은 교사들이 ‘전문적 공동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록 △주제 제시 △강사 섭외 △커뮤니티 제공 △문서작성 팁까지 지원하는 ‘전학공 전용 토틸 서비스’다. 전학공에 활용할 수 있는 90여 권의 도서와 함께 동료 교사들의 활용 방법 영상을 제시해 전학공 운영을 위한 준비 시간을 단축시켰다. 학점을 챙기면서 모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성찰과 나눔이 살아있는 수업 공동체’ 1학점 직무연수도 제공한다. (중략) 궁금한 점을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시판도 지원하고, 운영계획서와 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쌤학공은 교사들의 필요한 방향에 맞춰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안으로 집중된 서비스를 점차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략)

김명희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2021. 04. 12)

테크빌,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미래 교육 이야기’ 연수 공개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티처빌)에서 국내 원격연수원 최초로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 교육 이야기’를 교원 연수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 연사로 NASA, IBM 등 포천지가 선정한 100여 개 기업에서 수차례 강연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토마스 프레이가 던지는 화두는 ‘선

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나요?’다. 연수는 교사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미래학 개념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미래 모습 △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그려보는 미래 세계 △과학보다 앞서가는 미래형 사고 능력 △미래 국가와 나의 관계 △인공지능(AI)으로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총 8차시 자율연수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를 기획한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 대표는 “코로나19로 미래사회와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증가한 반면 아직 구체적인 현실로 그려보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다”며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 교육 이야기’는 인공지능, 미래 정부, 미래 교육과 직업 등을 통해 미래사회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략)

김태현 기자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1. 05. 06)

테크빌, 학교 공간 혁신 연수…폴킴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CTO 참여



테크빌교육의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폴킴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CTO와 현직교사 11명과 함께 신규 교원 연수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주제는 '학교공간혁신, 미래를 만들다'로 진행된다. 학교공간혁신은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며,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중략) 연수를 통해 학교재구조화 사업으로 공간을 혁신하고, 혁신된 공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제 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선진 해외사례와 학생들의 미래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

는 교수법을 제안한다.

연수는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리더의 역할 △미래형 협력학습을 선도하는 대구교육대학교부설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해외 사례로 우리 교실 낯설게 만들기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는 21ST CLD 등의 15차시 1학점으로 구성돼 있다. (하략)

이수현 기자

전자신문 (2021. 06. 08)

[이제는 디지털교육이다] 테크빌교육, AI 기반 교사 맞춤형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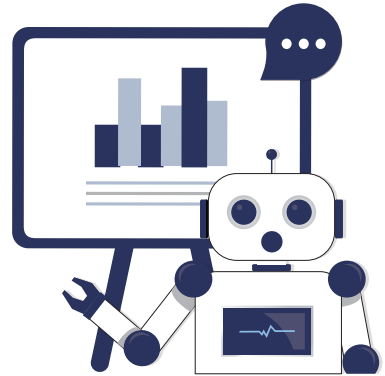
테크빌교육이 교사를 위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교사 맞춤형 지식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테크빌교육은 국내 최초 교사용 오픈마켓 콘텐츠 플랫폼 '쌤동네'에 AI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교육부·교육청별, 회원 활동 데이터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략)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올해는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교사 대상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토대로 교원연수, 강의

콘텐츠, 모임 등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교사 교육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출시하는 AI 기반 교사 수업 지원 서비스 '클래스메이커'가 본격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교원 연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AI 기반 맞춤 서비스를 통해 교사가 첨단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AI로 대체할 수 없는 고차원의 학습과 사회적 교류는 교사간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지원한다. 그는 "교사 대상 특화된 서비스로 차별화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대상 쇼핑몰 '티처몰'은 에듀커머스사업부로 전환, 신규사업을 확장하면서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키운다. 교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학교중심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략)

김명희 기자

초등교과서 검정체제 시대를 대비하는 AI 기반 수업 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7월 오픈

글.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교사나 학생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교사가 학년·과목·차시별로 적합한 콘텐츠를 찾고 활용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2022년부터 초등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사는 하루에 4~6과목의 서로 다른 출판사의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선생님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티처빌이 AI 기반의 수업 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7월 출시한다.

2022년 초등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새로운 교육의 시작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이상부터 수학·사회·과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초등 5~6학년 수학·사회·과학은 2023년 3월부터 전환되게 된다. 초등 고학년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 체제가 바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의 분권화·자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강화 차원에서 학교나 교사에게 교과서 편찬·발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차별 없는 공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처음에는 교과서를 통일해 사용하도록 했지만, 198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스웨덴의 경우, 국정교과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학년이나 특정 과목에서도 같은 수업자료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사

초등 3학년~6학년 주요 과목 단원-차시별 기본 수업 지도안 제공

1453 차시 나의 수업으로 복사하여 바로 활용하세요.
우리 학급에 맞게 수정,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수업 **인기 수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초등 3~6학년 주요 과목 단원-차시별 기본 수업 지도안 제공
나의 수업으로 복사해 바로 활용하세요.
우리 학급에 맞게 수정·편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및 이미지 약 12,000건 제공
수업 지도안 제작시간은 줄이고 질은 높이고
지금 우리 학급에 필요한 수업 자료를 쉽고 현직교사가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수업자료

동영상: 3학년 3학기 국어 1차시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하면 좋은 ...

참고 TIP
반려동물과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훈련법에는 표정, 말투,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인물과 반려견과의 소통 장면은 보며 표정과 말투의 변화를 느끼고 관찰할 때 표정, 말투, 몸짓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니...

참고법문
반려동물을 훈련할 시 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 속 반려동물 훈련과정을 보고 반려동물과의 소통 방법을 살펴보면...

의 재량에 맡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교과서 체제를 개편으로 21세기 미래사회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자치와 혁신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부터 과목마다 7~8개의 출판사 중 하나의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 출판사마다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데 교사는 하루에 4~6과목의 수업자료 사이트에 접속해 디지털콘텐츠를 확보하고 수업해야 한다. 또 융합형 수업에서는 콘텐츠를 구성하기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업지도안을 공유하는 '클래스메이커'

이에 티처빌은 초등교과서 검정체제에 선생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지도안 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출시하게 됐다. 인공지능과 현직 교사가 12,000여 개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초등 3~6학년 국어·수학·사회·과학 단원, 차시별 수업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1,453차시의 현직 교사가 만든 수업지도안이 등록돼 있으며, 간편한 동작만으로도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우리 학교 동료 선생님, 같은 학년 선생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출판사 수업지도 사이트 연계,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도

교과서 편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각 출판사 수업지도 사이트에서 준비한 수업을 서로 연결해 수업 시간에 한곳에서 수업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학생 학습활동 데이터를 누적하고 분석해 상세한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⑦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5기	4학점	07월 14일	08월 24일	08월 21일	08월 27일
	3학점	07월 07일	08월 10일		08월 11일
	3학점	07월 21일	08월 24일		08월 25일
	3학점	08월 04일	08월 31일		09월 01일
	3학점	08월 18일	09월 21일		09월 22일
	2학점	07월 07일	08월 03일		08월 04일
	2학점	07월 21일	08월 17일		08월 18일
	2학점	08월 04일	08월 31일		09월 01일
	2학점	08월 18일	09월 14일		09월 15일
	1학점	07월 07일	07월 27일		07월 28일
	1학점	07월 21일	08월 10일		08월 11일
	1학점	08월 04일	08월 24일		08월 25일
	1학점	08월 18일	09월 07일		09월 08일
6기	4학점	09월 15일	11월 02일	10월 30일	11월 05일
	3학점	09월 01일	10월 05일		10월 06일
	3학점	09월 15일	10월 19일		10월 20일
	3학점	10월 06일	11월 09일		11월 10일
	3학점	10월 20일	11월 23일		11월 24일
	2학점	09월 01일	09월 28일		09월 29일
	2학점	09월 15일	10월 12일		10월 13일
	2학점	10월 06일	11월 02일		11월 03일
	2학점	10월 20일	11월 16일		11월 17일
	1학점	09월 01일	09월 28일		09월 29일
	1학점	09월 15일	10월 05일		10월 06일
	1학점	10월 06일	10월 26일		10월 27일
	1학점	10월 20일	11월 09일		11월 10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티처빌을 ON하다

달라진 선생님의 일상,
이제는 티처빌로
채워보세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티처빌에서
연수 이수



수업 시간

클래스메이커로
간편한 수업 저작



COMING SOON

수업 후

쌤학공으로
전문성과 특별함을!



퇴근 후

쌤동네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눠요



출근과 수업부터 퇴근 후까지! 선생님의 일상을 채워주는 **티처빌 라이프** 시작해볼까요?

2021 상반기 신규 연수 총결산

100% '팍' 터지는 내맘대로 혜택선택

~7월 31일(토)



신규연수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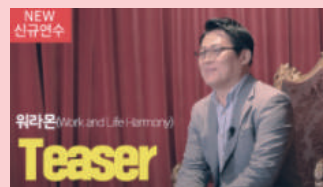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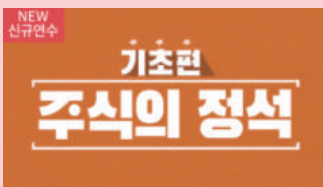
2학점 사은품

연수 20% 즉시할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잔
14,000포인트



1학점 사은품

연수 20% 즉시할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8,000포인트



· 2021년 티처빌 신규과정 ·

명리학과 정신의학으로 나를 이해한다!

1학점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명리심리학

양 창순



강의 특징

-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베스트셀러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명리심리학』의 저자가 강사로 참여

강의 개요

티처빌이 명리심리학 전문가, 양창순 작가를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내 팔자에 문제가 있다'고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집니다. 나의 운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 방법이 있다면? 동양의 운명학에 바탕을 둔 명리학과 서양의 정신의학을 접목한 '명리심리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명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치유할 힘을 길러보세요. 본 연수는 연계 과정인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명리학 공부법> 과정과 함께 들으면 더욱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격연수원 최초 도입!
토마스 프레이와 미래 세계를 예측하다

8차시 구글이 선정한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 교육 이야기

토마스 프레이



강의 개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나요?'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한국의 선생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은 교실을 바꾸었습니다.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속도도 빠릅니다. 1800년대 산업화 시대 이후의 사회 변화 속도보다 2000년대 정보화 혁명 이후의 사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떠한 속도로,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는 나침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연수는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토마스 프레이는 IBM, AT&T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미래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만의 시각을 담아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상, 미래 정부와 개인의 관계 변화, 교육 등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강의 특징

-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학 강의 한국 원격연수원 최초 도입
- 인공지능·미래 정부·지적 재산권 등 주요 키워드로 보는 미래사회



일과 삶의 조화, 이젠 워라몬이다!

2시간

김경일 교수와 함께 하는 워라몬(Work and Life Harmony) 티처



김 경 일

강의 특징

- 일과 삶의 조화, 워라벨이 아닌 워라몬(Work and Life Harmony)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인지심리학적으로 스스로의 답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의 개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질문을 통해 깨달음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학교 밖까지 이어져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본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고민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 인지심리학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일과 삶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교사의 상황에 대해 이해해보고 삶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워라몬(Work and Life Harmony)을 실천해보세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1학점

고교학점제의 시작! 진로학업설계



정 미 라 서 승 익 박 충 훈 박 기 윤

강의 특징

-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진로학업코칭·과목선택지도 등 소개
- 고교학점제의 실현 방안 및 진로학업설계 활성화를 위한 4인 전문가 강의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일반고·직업계고 현장 선생님의 실제 사례 제공

강의 개요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짜주는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나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자기만의 맞춤 시간표를 갖는 셈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경로에 필요한 과목을 학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수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시작을 준비하는 교사를 도와주며 고교학점제 중 진로학업설계 중심으로 탐색해보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수입니다.





노래하는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굴(GYUL)"

예술적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기표현'과 '소통' 방법 알려주고파

글. 이현지 서울등촌초등학교 선생님

tvN 음악 방송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실력자로 출연한 굴샘을 처음 보았다. 선생님과 싱어송라이터라는 꿈을 모두 이뤄서일까. 방송에서 잠깐 스치듯 보았을 뿐인데, 그 순간에도 참 예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에도 한때 음악과 교직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지금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해왔는지 싱어송라이터 굴샘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나는 싱어송라이터 교사 굴(GYUL)이다

2017년 나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더 생겼다. 본명은 '이현지'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나를 "굴샘" 내지는 "싱어송라이터 굴"이라 부른다. 나는 노래하는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교사 굴(GYUL)이다.

친근하고 다양한 매력의 굴처럼 다가서고 싶다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굴. 달콤하기도 하지만 새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콤함을 넘어 짭컌름 시큼함을 풍기는 다양한 색깔과 매력을 가진 굴.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어느새 굴껍질을 한가득 쌓게 만드는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의 매

력을 가진 굴. 대중적 과일인 굴처럼 사람들이 내 음악에 공감하고 매력을 느끼고 자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굴’이라는 아티스트명을 지었다. 아티스트보다는 선생님의 색이 짙어진 지금, ‘굴샘’으로서의 나는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내게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새콤달콤한 굴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선생님,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굴처럼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선생님. 나는 굴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흥이 많던 유년 시절, 예술중학교를 꿈꾸던 소녀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엄마 말씀으로는 말하는 것보다 노래를 먼저 흥얼거렸다고 하는데, 어릴 적 사진을 봐도 가만히 있는 정적인 사진은 하나도 없다(사실 학교에서 모범생 유형의 어린이는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교사가 된 지금 툭툭 튀고 활동적인 유형의 학생들과 궁합이 잘 맞는 편이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동화 구연을 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좋아하던 나는 뮤지컬 공연을 보고 처음으로 뮤지컬 배우의 꿈을 품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뮤지컬 배우들을 보며 강렬한 두근거림과 희열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무대를 보면 몸 안에서 뭔가 꼬물꼬물하는 끼의 기운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이후 예술중학교를 준비하며 교내외 동요대회나 가요 경연대회에 도전하며 음악에 대한 나만의 열정을 불태웠다. 하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고, 중학생 때부터는 음악을 접고 공부에 몰두했다.

성악의 길 접고 교대 진학, 그래도 음악은 늘 가까이

고등학생 시절 진로 고민을 하며 또 한 번 성악과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결국 고민 끝에 교육대학교에 진학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교육적인 적성도 매우 잘 맞던 나였기에 교대 생활은 나를 만족스럽고 행복했다. 하지만 어릴 적 꿈꾸었던 뮤지컬 배우의 꿈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마음 한편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나를 음악으로 이끌었다. 대학생 때는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회장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공연을 하기도 하고, 라이브카페에 오디션을 봐 1년 정도 매주 금요일마다 노래를 부르곤 했다. 주말에는 아마추어 뮤지컬 동호회에서 공연에 오르기 위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며 보냈던 적도 있다. 매일 매일 음악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리고 뮤지컬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나는 꿈을 이룬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매 순간 가슴이 뛰었고 행복했다. 반면 실습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교사로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무렵 고민이 많았다.



약력 이현지

- 서울등촌초등학교 교사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리반 예술 프로젝트 뮤지컬' 직무연수 강사
- Youtube 채널 <노래하는 선생님 굴> 운영
-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외 다수



무엇을 할지 고민했던 1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나는 1년 동안 학업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하고 나다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1년을 휴학하며 여러 개의 뮤지컬 작품과 사회참여 연극에 배우로 참여했고, 프로 어린이 뮤지컬 극단 오디션도 보기도 했다. 교직에 대한 꿈도 잊지 않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포레 성교육 강사에 지원해 경기도 2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기도 했다. 오디션 결과는 번번이 서류 탈락이었지만, 음악과 뮤지컬에서 갈망했던 모든 것을 시도해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또 지금의 일상에 만족하며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지금 생각해도 휴학 1년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다.

싱어송라이터 글을 만나게 해준 발령 대기 1년

임용고시를 본 이후 발령 대기만 1년 이상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음악을 향한 도전으로 생각해 작곡에 몰두했다. 사실 처음 작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첫사랑과의 이별이었다. 처음 맞아본 이별이었기에 절망적인 감정을 펼쳐내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차오르는 감정이 안에 쌓여 끓기 시작했고, 표출할 방법을 찾던 중 전 연인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새 출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아 노래를 만들어 불러보았다. 노래를 만드는 내내 감정에 몰입했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후 마법처럼 나의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려졌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멜로디와 노랫말에 담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나의 색깔과 나의 결이 담긴 노래가 쌓여 가며 노래는 나에게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됐다.

1. 다양한 예술활동은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 싱어송라이터 글로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다.
3. 싱어송라이터 교사 글샘이 부르는 아로하.



4



5

첫발매곡 〈맥주 한잔에 치즈 나초〉

〈맥주 한잔에 치즈 나초〉는 금요일 저녁 가장 친한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며 스트레스 타파 수다 타임을 가졌던 한 여름밤의 기억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다. 미디 학원에서 재미로 만든 곡을 학원과 연계된 발매사를 통해 부담 없이 발매하게 된 것인데 생각보다 대중의 반응이 좋았다. 그때 처음으로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했다. 발령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정규 교사보다 표현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시기였기에 내 인생에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행사 공연부터 창작 뮤지컬까지... 하지만 교사의 길 걷기로

낮에는 시간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은 시간에는 한 달에 한 곡 발매를 목표로 싱어송라이터 굴(GYUL) 활동을 이어갔다. 평일 주말 없이 지방 축제들에 행사 공연을 다니며 인디밴드 활동을 할 땐 내가 마치 전문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한 창작 뮤지컬 극단에서 배역을 맡게 됐고,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다. 그때의 경험들은 현재 나의 뮤지컬 동아리 운영과 학급 뮤지컬 창작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휴학 생활 때와는 또 다른 예술적 경험과 내가 직면했던 현실적 문제 상황은 나에게 많은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나는 교사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려볼 수 있었고, 내가 예술을 통해 경험했던 성장과 기쁨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예술과 교육을 융합한 교육자로 살아갈 것임을 결심하게 됐다. 과거의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 얻게 된 예술적 경험은 현재 나의 교육관과 학급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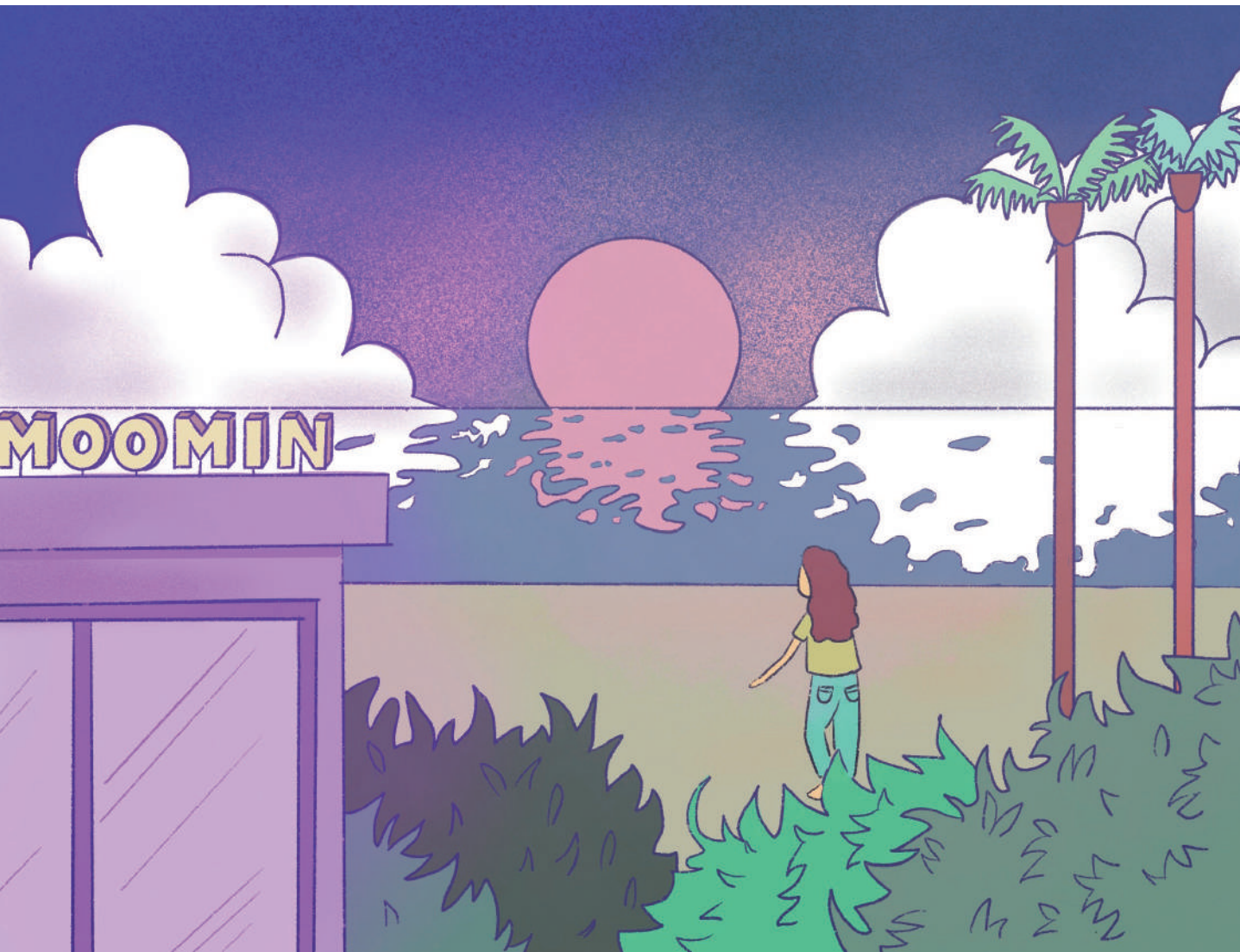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학급을 꾸려나갈 것

최근 우리 사회의 유튜브 열풍은 개인의 고유성이 존중되고 자기표현을 통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장래희망 직업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언제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아이들 역시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술적 활동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예술 활동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넘어 '표현'과 '소통'의 창의적 전달 도구가 돼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실에서 음악 창작·교육 연구·영상 제작·뮤지컬 창작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하기에 이 순간이 그저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요즘이다. **T**

4. 대중적인 과일 굴처럼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굴생.

5. 굴(GYUL)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소개팅(So getting)'.



해변에서의 어느 오후.

아이패드와 펜슬만 있으면 뭐든지 그릴 수 있어요

글. 우민경 서울가락초등학교 선생님



수업자료에 필요한 도안, 직접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이 좋고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을 위해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하게 됐다는 우민경 선생님. 요즘엔 동료 선생님들에게 아이패드 드로잉 강의를 진행하며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아이패드 드로잉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선생님의 삶까지 달라지게 했는지 궁금하다. 선생님의 삶도 아이들과의 수업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드로잉의 세계에 우리도 입문해보자.

안녕하세요? 티처빌 쌤동네 쌤모임에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민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200여 분의 선생님께서 초급 및 중급 모임(강의)를 수강해주셨습니다.

드로잉을 시작한 계기, 수업용 도안이 필요해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 드로잉을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필·펜·마카 등을 사용하는 작품을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도안을 만들려고 하니, 그린 것을 스캔해 다시 파일로 만들어 화질도 좋지 않고 원하는 도안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패드 드로잉,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어

이런 이유로 디지털 드로잉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러다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태블릿을 구입해 사용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모니터를 보며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됐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면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력 우민경

- 서울가락초등학교 교사
- 티처빌 쌤동네 쌤모임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 유튜브 <이종대왕> 미술 콘텐츠 업로드
- 이종대왕 미술팀 <틈틈이 노트> 개발

프로크리에이트 앱,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좋아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이 구매하는 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림 그리는 앱에 비해 사용법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다양한 브러시가 있어 브러시들을 잘 파악하고 나면 보다 멋진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크리에이트 이외에 다른 다양한 앱들을 사용해보았으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역시 프로크리에이트였습니다.

아이패드와 애플펜슬만 있으면 그림 그릴 수 있어

아이패드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 혹은 종이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연필·지우개·펜·색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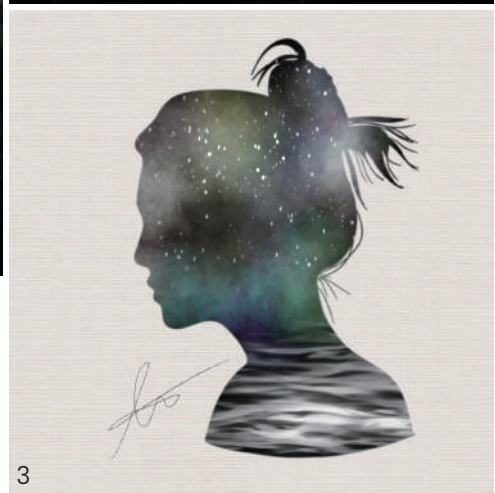
사인펜 등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도구를 둘 공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은 충전이 잘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만 있으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도안을 그리기 위해 학교에 가지고 출근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여행을 가서 취미로 드로잉을 하고자 해도 아이패드와 애플펜슬만 있으면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드로잉이 취미인 친구에게 프로크리에이트 앱 사용법 배워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내려받은 후,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몰라 이것저것 눌러보며 혼자 사용 방법을 익혔는데요, 혼자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행 취소를 두 손가락으로 탭 하면 쉽게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브러시 불투명도 탭 밑에 있는 화살표를 찾아 열심히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드로잉하는 것이 취미인 고등학교 동창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줘 보다 프로크리에이트에 큰 매력을 느끼고 드로잉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직접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배우는 모임을 만들어

친구에게 배우면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주는 모임이



교사를 위한 아이패드 중급
[프로크리에이트]



1. 네온사인 어피치.
2. 이종대왕 미술팀 민경임당.
3. 실루엣 속 우주.
4. 꿈화분 만들기: 실과시간
진로와 연계해 활용.
5. 꽃리스 시쓰기: 국어시간
시쓰기 활동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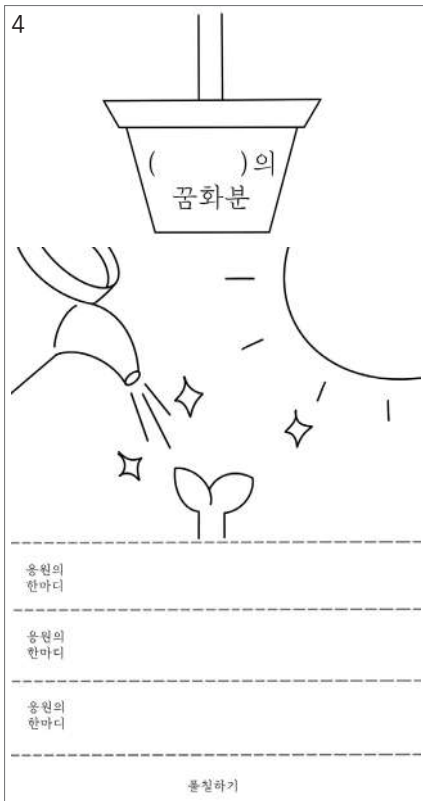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덧 제가 그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선생님께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적인 기능 및 응용 방법에 대해 알게 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쁘고 뿌듯합니다.

드로잉으로 풍성해진 수업자료, 나 자신을 위한 소확행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를 통해 예쁜 선과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됐고, 수정이 쉽다 보니 그림 그리는 데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도안 만들기가 쉽다 보니 더 풍성한 수업자료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을 통해 지금보다 수월한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더불어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못 그린다고 주저할 필요 없어

평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일지라도 드로잉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리기 어려웠던 예쁜 선과 도형도 펜슬 하나면 손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정이 어려운 일반 그림과는 달리 수정도 쉽고 간편합니다. 물감이나 색연필 등으로 색을 표현할 때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드로잉의 매력입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바라볼 때면 드로잉에 투자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완성되는 작품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제법 쓸쓸한 만큼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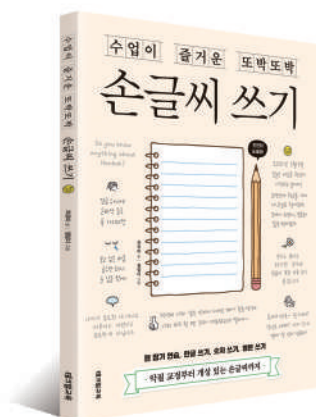
초등 온·오프 혼합수업 적응기, 팁, 수업사례, 수업성찰 성찰과 성장이 있는 차근차근 블렌디드 수업

저자. 서영인
출판사. 테크빌교육

이 책은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 수업,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을 만드는 “비판적 수업성찰 핵심질문+수업사례+전 과목 꿀팁”을 모두 담은 친절한 참고서이다.

쫓기듯 정신없이 진행해온 온·오프 혼합수업,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블렌디드할 수 있을까? 교사가 좀 더 만족하는 블렌디드 수업,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 고민해온 서영인 선생님이 비판적 수업성찰의 핵심질문과 수업사례, 수업안, 수업꿀팁을 모두 모아 한 권의 친절한 참고서로 엮었다.

이 책은 ‘원격수업으로 정말 수업을 대체해도 되는 걸까? 원격수업으로 과연 모든 아이가 낙오되지 않고 진짜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고, 이 의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핵심질문들을 뽑아 수업-학교-교사 자신을 성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진행한 블렌디드 수업 n차시의 상세한 사례와 전 과목 꿀팁, 수업안이 모두 담겨 있으니 학교·학년·학급에 제대로 맞춤형 블렌디드 수업에 욕심을 갖기 시작한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돼줄 책이다.



펜 잡기 연습, 한글 쓰기, 숫자 쓰기, 영문 쓰기 악필 교정부터 개성 있는 손글씨까지 수업이 즐거운 토박토박 손글씨 쓰기

저자. 차유미(차쌤)
그림. 정달다
출판사. 테크빌교육

토박토박 손글씨! 초등 저학년 때 글씨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아 3~5학년이 돼도 악필인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만 따라 쓰면 ‘손글씨 기초’부터 시작해 ‘가독성 높은 바른 손글씨’를 쓸 수 있다.

이 책은 펜 잡는 법부터 한글 자음과 모음 쓰기, 단어 쓰기, 문장 쓰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영어 알파벳 및 단어, 문장 쓰기 연습도 할 수 있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숫자 바로 쓰기 연습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실에 가보면 세로 셈을 할 때 간격을 제대로 적지 않아 오답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좋은 문장 필사를 하다 보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차분해진다. 나아가 ‘나만의 개성 있는 손글씨’를 갖게 되면 학교 환경 꾸미기나 각종 손글씨 쓰기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아이들에게 더 넓은 경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



하루가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자기주도성을 길러주는 하루 한 장 습관 노트

저자. 박재찬(달리쌤)
그림. 김영주
출판사. 테크빌교육

유명 블로그 ‘달리플래닛’의 주인장이자 티처빌 ‘쌤동네’ 인기 선생님 ‘달리쌤’ 박재찬이 내놓은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매일 아침 20분 짧은 글쓰기를 통해 수많은 아이에게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준 달리쌤이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공부 습관·독서 습관·생활 습관·감사 습관 등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한 고인의 흔적이자 결과물이다.

‘하루 한 장 습관 노트’를 쓰면 뭐가 달라질까? 첫째,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 둘째,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게 된다. 셋째, 하루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넷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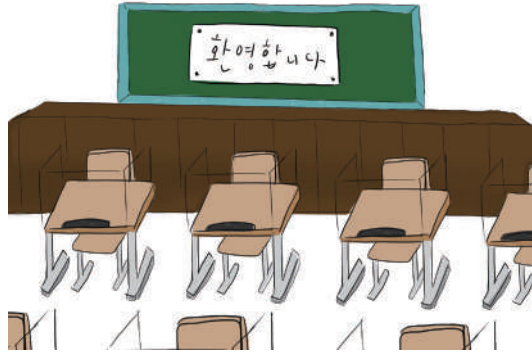
좋은 습관 만드는 게 어렵다고? NO, NO! 달리쌤의 안내대로 하루 한 장 습관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배움 습관·생활 습관·감사 습관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어느새 ‘좋은 습관 부자’가 돼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학교에 간 서니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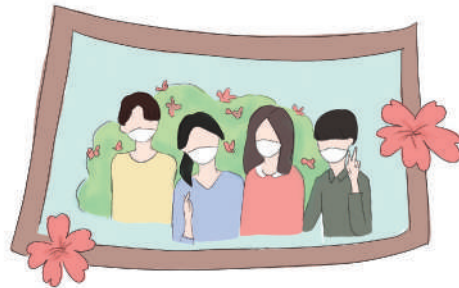


그림. 정은선
서울도성초등학교 선생님

학교에 적응하기 바빴던
긴장되는 3월과



서로 친해지기 바빴던
꽃 피는 4월을 지나



짜증 연휴를 보내고 만난
5월의 아이들은



험거워진 나사처럼 풀려버렸어요.

스승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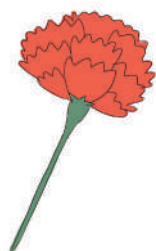
앞으로 남은 한 해가 걱정되어
고민하고 있던 때,



아이들의 편지에 감동 받아
다시 한 번 마음을 잡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SNS에서 '서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정은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웹툰
'학교에 간 서니쌤'과 교실 기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 간 서니쌤



부모공감 학부모 온라인 단체 연수

코로나 시대 맞춤형 부모교육을 찾고 계시나요?
학부모 원격 교육 지원 솔루션!



01 국내 최고 전문가의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면?

국내 최고 명사들의 콘텐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02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부모교육을 수강하고 싶다면?

모바일, PC를 통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03 One Stop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전문 운영 담당자가
단체 연수 세팅부터 학습 운영 관리, 결과 보고까지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부모공감의 학부모 온라인 단체 연수는

- ✓ 전국의 교육청,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습니다.
- ✓ 다년간의 진행을 통해 콘텐츠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평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더 좋은 부모교육
부모공감과 함께!

학부모 온라인 단체 연수 바로가기 

교육문의

1800-9502

www.bumomoonline.com



쌤동네 / 쌤모임 같이 시작해요!



쌤모임



선생님이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쌤모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을까요?

개설 수 505건

이용자 15,781건

쌤모임 주제 TOP3

3위

8%

교과 수업

2위

25%

학급 경영

1위

49%

온라인 수업 툴

※ 21년 1월 ~ 4월간
진행된 쌤모임 데이터 기준

쌤모임 제공 서비스 안내

모임 개설 편의



ZOOM 유료 계정 지원
다회차 모임 개설 가능

운영 서비스 지원



모임 알림 안내 발송
모임 운영 서비스 제공

각종 서류 제공



영수증, 수료증 자동 발급
강사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 제공



👤 티처빌연수원

👤 쌤동네

👤 티처몰

👤 키즈티처빌

👤 즐거운학교

👤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